

# 진안형 공유플랫폼 '썸썸' 개소

# 무주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실적 우수기관 전북 유일 선정

무주군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중 1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무주군은 2012년 12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수상(기관표창)을 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도 인감 대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실적은 14.87%이며 2021년에는 21.85%로 6.98%가 상승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은 그동안 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정문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를 해왔으며 차량등록 기관에도 차량등록 이전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제도 확산에 주력해 왔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장점을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신분 확인한 후 서명을 기재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비용과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 노후화된 유희 공간 리모델링해 아동 청소년 교육·문화 공유공간 재탄생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동향면에 지역주민과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공유공간인 '구릿골 공유경제 썸썸'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는 동향면 학산리에 있는 문화공간 담쟁이(대표 김성오)가 2021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6개월간 노후화된 유희 공간을 리모델링해 도서관, 공유부엌, 생활기술공방, 자원순환센터 등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유플랫폼 '썸썸'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문화공간 담쟁이는 구)파주자유허교진안분교로 운영하며 2015년부터는 지역의 여성 농민들이 모여 우리 동네 마실장 담쟁이로 시작해 플라마켓, 인권 캠프 등을 운영하며 전북청소년 활동기관으로 지정돼 유치 돌봄 및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도중 수년간의 공모사업 신청 끝에 올해 도비 공모사업이 확정돼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및 시설보수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난 4일에는 개소식을 열고,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형 공유경제 시범모델인 썸썸'에 대한 사업



진안군 동향면에 지역주민과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공유공간인 '구릿골 공유경제 썸썸'을 개소했다.

소개 및 감사장 전달 등과 지역 아이들의 축하공연, 예코 페스티벌, 썸썸 영화상영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썸썸은 청소년들에게는 목공·미용·베이커리 등 생활기술교육과 유아들에게는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만화도서관 및 환경을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며 한달에 한번 열리는 중고 마켓을 더욱 활성화하며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함께살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흥기 농촌경제국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진안을 떠나지 않고 썸썸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진안-무주-장수 3개의 시군이 인접해있는 동향면의 지리적 강점과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농촌형 공유마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가 실현되도록 진안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학생들이 영화·사진·영상 분야 능력 탁월

### 전북 영상콘텐츠 어워드 영상 부문서 무주고 작품 청소년 분야 대상

2021년 전북 영상콘텐츠 어워드 영상 부문에서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출품한 '한 번 해봐' 작품이 청소년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이는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사업을 통해 영상제작 교육을 수강한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품으로 손민혁, 문상혁 학생이 연출했다.

또 우수상은 무주초등학교 설하운 학생이 출품한 '답배가 일킨 일' 작품이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은 무주초등학교 송준우 학생이 낸 '후회' 작품이 대상을 차지하였고 전주대학교 김가을 학생이 출품한 '무제'도 일반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 영상콘텐츠 어워드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주최했으며, 영화문화발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밖에 올해 무주군 청소년들이 출품한 작품들이 각종 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무주고등학교 영화·영상 동아리가 출품한 '레디, 액션'이 제1회 완주시



전북 영상콘텐츠 어워드 영상부문 청소년, 일반 부문 대상자.

민영상제 청소년섹션 작품상과 제15회 전북청소년영화제 대상을 받았다.

또 안성고 1학년 1반 학생들이 출품한 '밀크실종사건' 작품이 제6회 부평 청소년영상제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안성고 1학년 2반 학생들의 뜻을 모아 출품한 '인생강화' 작품이 제15회 전북청소년영화제 오름상(은상), 제18회 창원시 청소년 영상축제 창원시약사회특별상 등 탁월한 성취표를 받았다.

위 영화제 출품작들은 (재)무주산골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된 '드림하이ON 드림캠프'를 통해 제작됐으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굿네이버스,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 등의 후원으로 진행했다.

무주군 문화예술팀 김성옥 팀장은 "올해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영상 제작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영상 공모전과 여러 영화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이들 학생들이 영상 사진영화 분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장수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장수군 주민자치위원회회가 주최한 2021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6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 유지에 따라 김용문 군의회 의장, 최한주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등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백십점정을 완료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발표회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밴드공연, 합창, 색소폰, 기타, 하모니카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며 지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보인 공연 중 대상은 천천면 주민자

치위원회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상은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돌아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자치위원 9명을 선정해 도지사표창 및 군수표창을 수여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도지사 표창에는 김종운 장수읍 주민자치위원장 ▲소순배 번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됐으며 군수표창에는 ▲임영란 장수읍 주민자치부위원장 ▲한덕수 산서면 주민자치 총무 ▲장동영 번안면 주민자치위원 ▲정춘원 장계면 주민자치위원 ▲김행열 천천면 주민자치위원 ▲이대운 계남면 주민자치위원 ▲우경춘 계북면 주민자치 위원 등이 수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전북 최초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개시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마을방문)를 통해 지급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6일부터 31일까지 2만 4,95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작년 6월, 12월에 이은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이다.

이번에도 행정에서 마을별로 직접 방문해 3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314개 마을을 직접 방문 지급 한다. 집을 비웠거나 개인 사정으로 마을에서 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는 11일, 12

일을 포함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진안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전주 호성동 소재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포함)하며 사용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다. 또한 분실 등을 대비해 지역농협, 전북은행 창구를 방문해 기명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를 포함하고자 하는 군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기탁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무주군은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사업장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 깨끗한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무주군청 환경지도 담당 공무원들과 강 살리기 네트워크 관계자 등 1개 반 3개 팀이 2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무주·안성 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등 10곳을 점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대기 및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오염도 검사), △농공단지 주변 하천 무단방류 상태 등을 주로 살

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 공설운동장 객격하게 새단장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생활체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진안 공설운동장을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7년 준공된 공설운동장은 축구 동호인과 진안군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등 시설 노후화가 돼 올해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 군비 7.5)을 들여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교체, 라인 마킹, 조명교체, 도색 등 노후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여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했다.

특히, 축구 골대 뒷면에 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재미와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레포츠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멀리 뛰기장과 포환 던지기장도 신설했다.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려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 체육시설 통합예약 서비스를 통해 대관 신청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